

‘아이’ 김향기 “우아한 거짓말”·‘증인’ 이을 치유3부작

보호종료아동·아동학과 졸업 앞둔 대학생 ‘아영’ 역
류현경 “엄마 역할...정인 조정치 부부 도움 받아”

상처로 가득한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영화 ‘아이’가 설 연휴 관객들을 찾는다. 21일 영화 ‘아이’의 제작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배우 김향기, 류현경, 김현탁 감독이 참석했다. ‘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아영(김향기)’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 ‘영재(류현경)’의 베이비시터가 되면서 시작되는 위로와 치유를 그린다. 소외와 무관심에 정면으로 맞서 힘겨운 삶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 나가는 ‘아영’과 ‘영재’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고 또 붙잡을 자신이 있는지 예리하지만 따뜻한 화두를 던진다. 김향기가 보호종료아동으로 아동학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 ‘아영’ 역을 맡아 성숙한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김향기는 시나리오를 읽고 아영과 동일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흥미

로웠다. 아영이가 나와 많이 닮았다고 느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데 ‘왜이리 닮은 것 같지’라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우아한 거짓말’과 ‘증인’에 출연한 김향기는 두 영화를 이을 치유의 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유 3부작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감사하다”며 “이전 작품과 같이 성장해나가는 인물이고, 또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고 했다. 류현경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 영재로 분해 깊이 있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 역할이다. 그는 “사회와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아영을 만나고 아이와 교감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인물이다. 영화를 찍으면서 인간적으로 성

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말을 되뇌는 촬영장이었다. 세상의 편견 속에 오늘을 잘 살아내려는 정서를 담아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엄마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가수 정인과 조정치 부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인 조정치 부부의 둘째가 (극 중 생후 6개월 된 아들) 혁이와 또래다. 둘째 육아를 도우며 아이의 정서를 살펴보고 지켜봤다”며 “육아가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두 부부가 영화에 큰 도움을 줬다. 일등공신이다”고 고마워했다. ‘영재’를 배려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인 사장님 ‘미자’ 역을 맡은 엄태란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경이로웠다. 리허설 때마다 메모를 하신다. 캐릭터의 감정선을 기록하면서 연기를 하시더라. 존경할만한 선배와 작업해 무릎한 순간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동구 밖’, ‘기형아’ 등 단편영화를 통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인물들의 현실을 그린 김현탁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김 감독은 “가족의 형태,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자연스



럽게 이 이야기를 구성하게 됐다”며 “결핍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면서 보듬고 손을 내민다. 관객들이 둘의 선택을 응원하고 치유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을 다룬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

들었다. 이 친구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에 집중했다”면서도 “이들이 아니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렸다. (보호종료아동)의 이면에 치중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혔다. 2월10일 개봉한다.

있지, 글로벌 활동 넓힌다...첫 영어 앨범 발매

네이버 나우(NOW.) 통해 카운트다운 라이브 열어

그룹 ‘있지(ITZY)’가 데뷔 후 첫 영어 앨범을 발매한다. 21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있지는 22일 오후 2시 데뷔 첫 영어 앨범 ‘낫 사이(Not Shy)(English Ver.)’를 발매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발매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에는 네이버 나우(NOW.)를 통해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열고 국내외 팬들과 소통한다. 있지는 지난해 ‘4세대 대표 걸그룹’의 역할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3월9일 공개한 미니 2집 ‘있지 미(IT’z ME)’의 타이틀곡 ‘워너비(WANNABE)’는 해외 매체에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해 12월 ‘워너비’는 미국 페이퍼 매거진이 뽑은 ‘2020 베스트 K팝 송 40(The 40 Best K-pop Songs of 2020)’ 중 5위를 차지

했고, 미국 버즈피드의 ‘2020년 K팝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 곡(35 Songs That Helped Define K-Pop In 2020)’과 영국 메트로의 ‘2020년 K팝 최고의 컴백작(The best K-Pop comebacks of 2020 ranked)’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있지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 상승세는 물론 공식 채널 구독자 수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워너비’ 뮤직비디오는 21일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 수 2억6505만 뷰를 돌파했다. ‘아이씨(ICY)’ 뮤직비디오 역시 1억9545만 뷰로 2억뷰 고지를 눈앞에 뒀다. 지난 2019년 1월14일 문을 연 유튜브 공식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 424만명이다. 다섯 멤버들은 신곡 발매마다 화제를 모으는 다양한 버전의 퍼포먼스 영상, 자체 콘텐츠 시리즈 ‘ITZY : Hello 2021’, ‘ITZY? ITZY!’ 등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다.

전도연·류준열, JTBC ‘인간실격’ 출연...허진호 감독 연출

본격적인 촬영 돌입

전도연과 류준열이 짙은 감성의 드라마 ‘인간실격’으로 돌아온다. JTBC 새 드라마 ‘인간실격’ 측은 전도연과 류준열의 캐스팅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방송 예정인 ‘인간실격’은 인생의 내리막길 중턱에서 문득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빛을 향해 최선을 다해 걸어오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여자 ‘부정’(전도연)과 아무것도 못될 것 같은 자신이 두려워진 청춘 끝자락의 남자 ‘강재’(류준열), 격렬한 여동 앞에서 마주한 두 남녀의 가슴 시린 치유와 공감의 이야기가 밀도 높게 그려질 예정이다. ‘인간 실격’은 전도연과 류준열의 만남만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어둠 앞에서 마주하는 부정과 강재로 인해 호흡을 맞출 전도연과 류준열의 시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굿 와이프’ 이후 5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전도연은 작가가 되고 싶었던 대필작가 부정 역을 맡았다. 최선을 다해 걸어왔지만, 어느 날 문득 실패한 자신과 마주하며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자다.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 위에선 부정은 여동들의 선을 넘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전도연은 자질구레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부정의 상실과 불안, 공허와 외로



움을 오가는 큰 감정 변화를 호소려 짙은 연기로 그려낼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류준열의 파격 변신도 주목할 만하다. 류준열은 역할대행 서비스 운영자 강재 역을 맡았다. 어른인 척하지만 여러 소년같고, 냉소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따뜻한 강재의 복잡한 내면을 류준열이 어떻게 빛내질지 기대를 모은다. 강재는 가난의 유전자를 벗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다. 부자의 삶을 꿈꾸며 지름길을 찾아 헤맸지만,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가파른 오르막길 앞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곳에서 위태로운 여자 부정을 만나 감정의 격변을 겪

는다. ‘인간실격’은 영화 ‘천문’, ‘덕혜옹주’,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등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허진호 감독이 선정한 첫 드라마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영화 ‘소원’, ‘나의사랑 나의신부’, ‘건축학개론’ 등의 김지혜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대본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두 배우가 떠올랐다는 허 감독은 “자극적인 장치 없이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멜로물은 어려운 장르다.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두 배우의 연기로 구현하고자 한다”며 “첫 드라마에서 두 배우와 함께 작업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설렌다. 쓸쓸한 부정과 강재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이혼’ 제작진 “출연자 향한 악플·비난 자제” 당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측이 출연자를 향한 악성 댓글·비난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다. 21일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이하 ‘우이혼’) 제작진은 “이혼한 부부는 평생 남남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우리 이혼했어요’에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는 다양한 부부들이 등장한다”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출연자들은 누구도 쉽게 밝히기 힘든 가정사와 상처, 그리고 이혼 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이처럼 진심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방송 이후 따라오는 본인과 가족을 향한 도 넘은 악플과 비난, 추측성 댓글은 출연진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큰 용기를 내준 출연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의 악플과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전 부인인 유튜버 유썬임과 출연하는 최고기는 이틀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악성 댓글 자체를 당부했다. 최고기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이혼’에서 비치는 모습으로 3개월간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렸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즐거웠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이혼’을 통해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며 “방송 하나로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좋은 엄마임이 틀림 없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이혼’은 지난해 11월 20일 첫 방송했다. 이영하-선우은숙, 최고기-유썬임, 이하늘-박유선, 박재훈-박혜영, 박세혁-김유민 등 이혼한 커플이 출연했다.

뉴스스

현아, 28일 새 미니앨범 발매...‘I’m Not Cool’

1년2개월 만에 컴백

가수 현아가 1년2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은 21일 현아의 7번째 미니앨범 ‘아임 낫 쿨(I’m Not Cool)’이 오는 28일 오후 6시에 발매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이미지에선 처피팬 양 갈래 헤어스타일에 독특한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현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핑크빛 퍼 재킷에 액세서리가 어우러지며 현아 특유의 사랑스럽고도 자유분방한 매력을 더했다. 앞서 현아는 공식 SNS를 통해 새 앨범 콘셉트 비디오를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대중들의 무수한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현아의 솔직한 인터뷰가 짧게 녹아있다.



특히 영상 말미에 ‘빠’ 처리돼 호기심을 자아냈던 장면은 이번 신보의 제목이기도 한 ‘아임 낫 쿨’로 추정돼 새 콘셉트에 대한 관심을 끈다. 현아의 7번째 미니앨범 ‘아임 낫 쿨’은 2019년 11월 발표한 ‘플라워 샤워(FLOWER SHOWER)’ 이후 1년2개월 만의 신보다. 차별화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현아의 이번 신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스

성시경, 악플러 법적대응 나서...경찰에 고소장 접수

가수 성시경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성시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와이케이)는 20일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시경은 지난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될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고소 악플러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와이케이 측은 인터넷 아이디를 기준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돼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스